

“북한 올림픽 참가 성공개최 도움 될 것”

문재인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북한 참가방안 검토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이 평창동계 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듭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백악실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며 “물론 북한의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개막식 기념사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은 오전 9시30분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IOC 위원장과의 확대 접견은 10시50분까지 이뤄졌다.

단독 면담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안 검토 제언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바흐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IOC와

1998년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당시 김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하면 나는 무엇이든 동의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한 말씀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선수단 동시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과거 시드니올림픽 참가 사례 언급을 통해 예뻐서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IOC위원장단과 계속된 확대 접견에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서의 북한 선수단 참가를 IOC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것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준비가 잘 되고 있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그 자체로도 대외적인 부담과 성공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IOC가 북한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 역시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며 “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의 국제 스포츠 기여 정도를 감안해 현재 2명으로 한정

돼 있는 IOC 선수위원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어떨겠는가”라고 바흐 위원장에게 물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IOC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박 대변인은 소개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성료

제3회 전라북도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16개 시·도에서 선수 및 임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치아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양궁이 금메달을 꾸준히 선사하듯 장애인올림픽에서 매회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고 있는 효자종목이다.

표적구를 향해 양선수가 각각 6개의 공을 던지고 굴리고 또는 발로차서 표적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시킨 선수가 이기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장애인 스포츠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대회결과 BC1에서는 안산보트리팀 정성준 BC2에서는 울산보치아연맹 이정호 BC3에서는 울산보치아연맹 김준엽 BC에서는 안산보트리 강성욱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중증장애인들의 대회인 만큼 관내 자원봉사단체 5개 단체 4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들의 식사를 도우며 훈훈한 고창의 정을 전국에 알렸다.

임평화 전라북도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고가 되기 보다 최선을 다하고 경쟁 보다 사랑을 나누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보치아의 대중화에 더욱 힘쓰고 뛰어난 선수발굴과 육성에 힘써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자부 신생팀 창단 할 것... 국제 경쟁력 강화 초점”

KOVO 조원태 신임 총재, “구단보다 국가 이익 우선”

한국배구연맹(KOVO) 제4대 총재에 오를 조원태(41) 대한항공 사장이 임기 기간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남자부 신생팀 창단에 대해서도 임기 내 달성 의지를 내비쳤다.

조 총재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KOVO 총재 취임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단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점이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조 총재는 “프로배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대표팀은 해외에 나가면 성적 이 저조하다. 올림픽 출전도 20년 간 못했다”면서 “내가 맡은 조직은 프로배구연맹이지만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맹 스폰서 확대 등을 두고 조 총재는 “국내 프로 스포츠를 볼 때 스폰서나 관심도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이끌어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구인들의 숙원이자 장기 프로젝트가 될 2군리그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배구가 계속 발전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조 총재는 기자회견 후 열린 이·취임식에서 몇 가지 공약들을 추가로 내걸었다. 직접 뛰어내린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남자부 신생팀 창단이다. 조 총재는 “7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자리리가 8개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클럽시스템 등을 통한 유소년 배구 인프라 확충과 심판 교육 시스템 강화도 교육협력위원회를 위한 대한배구협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내걸었다.

조 총재는 200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대한항공 경영전략 및 영업부문 총괄 부사장(CMO) 겸 그룹경영지원실장,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COO) 겸 대표이사 및 한진칼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신임 총재가 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겸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 구단주를 맡고 있다.

조 총재의 임기는 2017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다.

2004년 출범한 한국배구연맹에 40대 총재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5년 간 KOVO를 이끌었던 구지준 전 총재는 이날을 끝으로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구 전 총재는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한 명의 평범한 배구팬으로 항상 배구를 즐겨보고 프로배구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김민근기자

KBO, 6월 MVP 후보 발표 KBO는 6월 한 달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2017 타이거즈 KBO 리그 6월 MVP 후보를 3일 발표했다.

부수 LG 허프, SK 박종훈, 롯데, 타자 두산 김재환, SK 최정, 한화 로사리오 등 총 6명이 선정됐다.

LG 허프는 6월 한달 간 5경기에 선발 출장해 3승(공통 3위)을 거두고 38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 1.89(3위)를 기록했다.

박종훈은 6월 한 달 간 5경기에 선발 출장해 27%이닝 동안 5자책점을 내며 월간 평균자책점 1.65로 1위에 오르며, KBO가 시상하는 월간 MVP 후보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김재환은 6월에 선발로 나선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다승 부문 단독 1위에 올랐고, 탈삼진 역시 30개로 단독 1위다.

김재환은 6월에만 9타수 43안타(1위)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율 0.443으로 1위에 올랐다. 전체 타자 중 유일하게 5할대 출루율(0.522)과 8할대 장타율(0.814)을 기록하며 모두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정은 7월1일 현재 28홈런으로 1위에 올라있다. 5월 4홈런으로 잠시 주춤했던 홈런포를 다시 가동시켜 6월에만 12홈런을 터뜨리며 1위를 기록했다.

로사리오의 개막 이후 5월까지 기록한 9홈런보다 많은 11개의 홈런을 6월 한달 간 몰아치며 홈런 부문 2위에 랭크됐다.

6월 MVP는 KBO 리그 출입기자단 투표를 거쳐 오는 5일에 발표된다.

선정된 MVP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